

타인과의 '비교 욕망' 나에게서는 해롭다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9)

소유를 통해 불변자아를 확인하려는 욕망이 탐욕이다. 이 탐욕을 '소유탐욕'이라 부른다면, 소유탐욕에도 크게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소유를 통해 자아감을 경험하려고 하면서도 소유자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자제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소유욕은 '약한 소유탐욕'으로써 소위 '건전한 세속적 욕망'이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한 자아확인'이고, 여기서도 탐욕이 발생한다. 부다가 극복 대상으로 역설하는 '자만'의 충동과 경향성이 이에 해당한다. 인간은 개념적 비교를 행할 수 있는 생명체다. '나는 누구보다 ~한 사람이다'라는 비교판단을 수행하는 존재이며, 이 비교행위를 통해 자아를 규정하고 자아감을 확보한다. 자기 안에서 불변의 자아를 확보할 수 없는 인간은, 그래서 자기와 타인의 비교에서 발생하는 대비의 자아

을 통해 불변자아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해소하려고 한다.

문제는 비교자아에 결코 절대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비교는 언제나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비교상대가 언제나 자기보다 하열한 것은 아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자기보다 우월한 상대만을 골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들을 외면하고 싶어도 내면의 시선은 항상 그들을 향한다. 결국 비교의 우월자아감으로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가 없다.

착하는 유형이다. 비교자아에 대한 이러한 욕망은 '강한 비교탐욕'으로써,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해하다.

강한 비교탐욕에서도 '이기적 자기중심성' '무한 증폭' '노예적 의존성' '무지 고착'의 속성이 선명하다. 비교탐욕은 '비교를 통한 우월자아'를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배타적 자기중심성이 강화된다(이기적 자기중심성). 그리고 우월자아의 근거가 되는 비교우위는, 크면 클수록 선명한 우월자아감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비교탐욕은 비교우위의 격차를 끝없이 확대하고자 하는 갈증에 불탄다(무한 증폭).

또 비교탐욕의 시선은 언제나 타인을 향한다. 타인과의 우월한 비교 격차만이 이 탐욕의 갈증을 달래는 수단이기 때문

비교를 통해 우월한 자아감을 확보하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체성을 찾는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힌다. 만족과 행복의 근거가 타인에게 있을 때, 그 존재감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공허하다.

다른 하나는, 소유를 통해 견실하고 안정된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 좌절됨에도 불구하고, 소유 자아에 대한 환상에 집착하여 집요하게 소유를 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소유욕은 '강한 소유탐욕'으

'누구보다 ~한 사람'이라는 비교 우월한 자신을 확인하려는 욕망 '비교 탐욕'에 스스로가 지배되면 무지를 외면하고 방치하게 된다

로써,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악을 초래한다.

소유물로서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소유 탐욕도, '이기적 자기중심성' '무한 증폭' '노예적 의존성' '무지 고착'의 속성을 지닌다. 소유탐욕에 몰두하는 사람은 소유를 위한 배타적 이기심에 몰두하기 마련이고(이기적 자기중심성), 아무리 차지해도 만족할 수가 없기에 끝없이 확대되는 소유충동에 몸을 맡기게 된다(무한 증폭). 또 탐욕적일수록 소유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소유하는 주제'와 '소유되는 객체'의 본래자리가 뒤바뀌어 주인이 노예가 되는 소외현상이 발생한다(노예적 의존성). 그리고 소유탐욕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소유물을 통한 자아확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성찰하지 못하여 무지가 굳건히 자리 잡는다(무지 고착).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비교를

감으로써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채우려한다. '나는 누구보다 ~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적 비교의 자아규정은 선명한 자아감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이 보여 주는 끊임없는 비교충동은 자아감 확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비교에서 발생하는 자아감은 두 유형이다. 비교우위에서 생겨나는 우월자아감이 한 유형이고, 비교열위에서 생겨나는 열등자아감이 다른 하나의 유형이다. 이 두 자아감은 모두 선명한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판이하다. 우월자아감은 자존의 우월감을, 열등자아감은 자아의 열등감을 수반한다. 인간이 어떤 유형의 자아감을 선호할지는 명백하다. 우월자아감

여 불변자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욕망이 탐욕이다. 이 탐욕을 '비교탐욕'이라고 불러본다면, 비교탐욕도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월자아감의 절대적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한적 우월자아감을 누리려는 것이 한 유형이다.

재산, 외모, 성적, 직급 등을 기준 삼아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월자아감이다. 이런 유형의 욕망은 '약한 비교탐욕'으로써, 자기와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일상에서 용인 가능하다. 또 하나의 비교탐욕이 있다. 우월자아의 절대적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을 수용하지 거부하면서, 우월자아감의 확보에 끝없이 집

이다. 이것은 자기만족이나 행복의 원천이 타인에 의존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과 행복의 근거가 타인에게 있을 때, 달리 말해 타인에 의존하여 자기 존재감이 수립될 때, 그 존재감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공허하다. 자족적 자존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비교탐욕이 강할수록 노예적인 타자 의존성이 심화된다(노예적 의존성).

비교의 우월자아감으로써 불변자아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교탐욕에 지배 받는다는 것은, 무지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무지 고착).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열린 진리와 하나일수 있게

부처는 신(神)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이다.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도 아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커다란 스승이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은 주입식이 아닌 대화체로 되어있다. 주인공 신(神)과 그에 복종하고 따르는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를 거부한다.

중생이 곧 부처요, 사람이 곧 움직이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는 수직의 종교가 아닌 평등을 강조하는 수평의 종교인 것이다. 민고 의지하고 따르는 타력신앙(他力信仰)보다 스스로 정진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자력신앙(自力信仰)을 강조한다. 물론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다만 성경과 불경 내용에 분류해보면 불교는 신(神)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종교라는 사실이다. 내생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현생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종교이다. 물론 불교의 경전내용이 중생들의 눈높이에 따라 방편설을 앞세우는 세제불교(世諦佛敎)도 있고, 진리 그 자체와

의 미래는 밝다. 중생교화의 방편에 짓눌려 부처님의 참 가르침이 좋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중에 조어장부(調御丈夫)가 있는데 이는 사람 중의 참사람, 사람 중의 으뜸인 스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사찰의 불상을 모신 건물은 대웅전(大雄殿)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웅전에서는 대웅(大雄)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 승려 스스로 대웅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대웅이 될 수 있게 계엄을 병으로 알아 몸과 마음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상식이 통할 수 있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열린 불교, 열린 사찰, 열린 생활에서는 부끄러움을 기우지 않는다.

아직도 사찰의 주지실에 사주·관상 따위의 서적이 끼어있다면 아무리 공색하게 변명해도 부끄러움을 기우는 일이다. 신도 생활을 즐겁게하며 기억해 축하전화를 잊지 않는 승려가 있다면, 자상한 스님은 필히 언젠가 땀땀하고 당당한 수행승일라는 만무하다.

불교의 자비에는 섭수자비(攝受慈悲)와 절복의 자비(折伏慈悲)가 있는 것이다. 반

주지 진산식, 청빈과 거리 멀어 열린 자유·평등·평화 정신 살려야

하나를 이루게 하는 진제불교(眞諦佛敎)도 있다. 이 또한 세제불교와 진제불교는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러긴 하나, 세제불교와 진제불교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땀땀하고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불교로 우뚝 서야 한다.

사찰의 법회내용도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논리와 표현을 갖춰 경전중심으로 진리와 하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사찰 경계를 앞세워 마치 구걸하듯 권선문 따위로 복짓는 신앙을 강조해서는 안 될 터이다.

비구는 결사(乞士)이다. 청빈은 수행자가 갖춰야할 기본 덕목이다. 그렇다면 승려의 주머니는 비어 있어야 당연하고 노후대비는 비상금이 아닌 수행력이 되어야 마땅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예로 삼재풀이에 대해 살펴보자. 국어사전에 박혀있듯 삼재풀이는 '삼재가 드는 해에 재앙을 미리 막기 위하여 무당이 드리는 처성'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크고 작은 사찰에서 신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는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삼재풀이 의식은 사라져야 할 그림자이다.

사찰경계가 어렵고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열린 자유(佛), 열린 평등(法), 열린 평화(僧)의 근본정신을 살릴수록 불교

아들이는 자비가 섭수자비라면 때리는 자비가 절복자비인 것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승려라면, 불제자라면 궁극의 목표는 깨달음에 있는 게 당연하다. 깨달음을 완성하는 해탈의 길, 열반의 락(樂)은 살아서 누리는 행복과 자유이다.

존존하게 즐어드는 생활보다 활기차게 열려있는 진리와 한 몸을 이루어야 날마다 좋은 날의 행복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는 없겠지만 승려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될 터이다. 주지 직이 명예직이 되어서는 안 될 터이다. 본사 주지 스님이 진산식이라 하여 거나하게 취임식을 치르는 모습도 청빈과는 꽤나 거리감이 있는 사라져야 할 그림자이다.

부처와 중생은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이다. 승려와 신도는 우월과 열등으로 양분될 수 없는 관계이다. 항을 쓴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쓴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는 법이다.

사찰에서 만난 신도들은 합장으로 인사를 잘 하나, 거리에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공황에서 만난 사람들 중 스님을 보고 합장하는 사람들은 왜 날로 줄어드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 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 12cm x 세로 5.7cm x 두께 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의)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아침의 기도
-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 4. 밤바 꿰우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한 기쁨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엄 염불
- 10. 저녁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빈손으로 왔다가
- 13. 사랑을 쓸 때는
-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을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고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버리면
- 19. 나의 과실을 부리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잡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전인 1
- 22. 광명전인 2
- 23. 개경계
- 24. 지경공덕분
- 25. 예불문
- 26. 이산 해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한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경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장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발우 환영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서원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길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마인의 노래
- 49. 상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불교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악장
- 53. 관세음보살 2악장
- 54. 개경계
- 55. 아상정결분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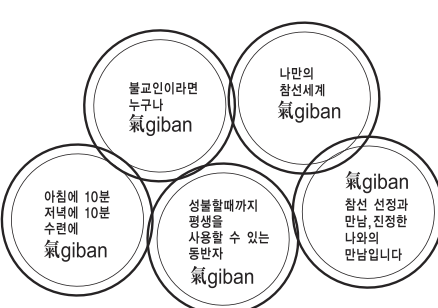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8cm]



www.hyunbulshop.com